

■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회의일시
 - (서류심의) : 2024년 4월 4일(목) 14:00~17:30 (비대면 ZOOM)
 - (PT·인터뷰 심의) 2024년 4월 19일(금) 13: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영상회의실

-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전국에 미술문화 조성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시각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의 예술복지 향상과 예술 인프라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신규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과 미술관 전시 활성화를 위한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모두 18개 예술단체가 참여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해 신규 부문 4개 단체와 활성화 부문 7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를 통해 신규 부문 2개 단체와 활성화 부문 5개 예술 단체가 최종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지자체와 지역 예술 단체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며 사업에 선정된 예술 단체에 박수를 보냅니다.

- 심의기준 / 가중치 및 심의방법

<2024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심의기준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공간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 내용의 우수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한 수행단체의 경력 부합성을 살펴 보았고 이전년도 작은 미술관 지원 사업에 참여 하였던 단체는 이미 시행하였던 사업의 실적을 평가 항목에 올렸습니다. 특히 신규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부문의 경우 시설의 규모 및 입지 여건 그리고 미술관의 개방성 및 활용 여건을 살펴 지역의 문화 환경 및 지속 가능성과 그 파급력 까지도 가늠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단체가 제시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둬서 물리적인 시설과 예술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문화 생태의 리즘적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전시를 제공 함으로써 미술의 공적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는 총 5분의 심의위원이 약 20여일 간 서류 및 영상 자료와 현장 답사, 인터뷰 등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은 본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술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토를 하였으며 서류 중심의 1차 심의에서 선정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차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미술관 전시 활성화 부문은 영상 및 사진 검토를 신규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부문은 현장답사 및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단체의 PT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본 사업의 취지 및 방향에 부합한 예술단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심의위원회는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절박함 속에 지역의 예술단체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확산되었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들의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성 문화행사를 주요 골자로 한 오컬트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으로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혹은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수급 방책으로 활용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이 단순하고 한시적인 문화 이벤트성 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예술활동 공간으로서 미술관 향유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의 희망을 그리고 이를 후원하는 예술 단체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 창작물 역시 언제 어디서나 진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창작과 전시가 예술적 감동을 주거나 특별한 장소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작은 미술관이 그 규모와는 상관 없이 예술의 환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삶의 한 순간이 담긴 소중한 기억의 장소로 남길 희망하며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집단을 매개 할 수 있는 예술 플랫폼으로 진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2024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 단체들은 다양한 전시 기획과 상당한 규모의 전시 공간 조성 및 운영 경험 등을 통하여 예술 단체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으며 예술단체와 연계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지원한 예술 단체의 상당수는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전제로 한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기획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의 중단 및 전환에 따른 재정 확충 목적의 이벤트성 문화 콘텐츠로 점철된 기획안을 작성하여 전시 공간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참여작가의 면모를 확인 할수 없는 등 심의위원들의 우려와 고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규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부문에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취지 및 방향성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2개의 단체를 선정하였고, 전시 활성화 부문으로 5개 단체를 선정 하되, 심의 기준의 적합성 및 충족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하나 같이 뛰어난 전시 기획력과 공간의 활용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추었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요구치에 매우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회 및 당부사항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심의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심의의 정량적 판단 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원 서류와 현장 상황은 늘 변수가 존재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타까운 것은 늘 부족한 정책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 단체들의 지원 재정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관련 예술 단체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며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한정적인 환경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미술관이 지닌 공공재의 숙명인 동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 확대와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과 같은 문화 예술 지원 예산의 필요성 및 지속적인 집행의 당위성을 필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량있는 작가의 전시보다도 AI의 예술 활동이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기술의 혁신과 첨단 정보의 시대 속에 지역은 이미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의 예술 활동은 정책적인 복지 대상이거나 관광자원으로 지역개발 혹은 활성화 수단으로 전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술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지역의 공공 미술이 지닌 역할과 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진지한 고민과 상황의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 내외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지역의 예술 단체들과 관련 지자체 및 후원 단체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조성및운영지원(신규)) 사업 지원결정 세부내역

연번	신청단체명(가나다순)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원)
1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미술관이 있는 흔한 동네풍경만들기	50,000,000
2	제주문화예술재단	호플락미술관	50,000,000

■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전시활성화지원) 사업 지원결정 세부내역

연번	신청단체명(가나다순)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원)
1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기대 수 있는 내일)	30,000,000
2	복합문화지구누에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미술관	30,000,000
3	부안군문화재단	2024 부안작은미술관, 부안을 아카이브하라	30,000,000
4	안계미술관	소멸을 생각하는 일	24,000,000
5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2024 사천미술관 전시활성화 지원사업	23,000,000